

한강, 수영으로 건너기!

글. 조봉기 OBS 기술국 차장

‘앗! 차가워. 수트를 입을 걸 그랬나?’

한강 입수의 첫 느낌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뭐 죽기야 하겠냐는 심정으로 한강도하(?)를 시작했다.

개인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한강 수영으로 건너기.

2019 한강 크로스 스위밍 챌린지 대회. 벌써 6회째다.

왕복 1.8km를 제한시간 1시간 10분에 완영하는 대회이다.

대회 전경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지는 5년째. 불규칙한 방송국 생활과 중년(?)으로 접어든 나이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필요로 인해 시작한 수영.

나이도 있고 해서 좀 쉬엄쉬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보자는 의지와 평소 가지고 있던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시작했다. 구명조끼를 입어도 바닥에 발이 닿지 않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로서는 한강 도전은 처음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발차기부터 쉽지 않았다. 수영장에서 킥 판을 잡고 25m를 한 번에 가지 못하는 저질 체력을 스스로 느끼며 하루하루 물먹으며 배우다 보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대회 장소 전경



잠실수영장 참고 사진

그러다가 우연히 오픈워터 대회인 한강 건너기 대회가 눈에 들어왔다. 이걸 빠르기가 목적이 아니기에 오히려 나의 관심을 더 끌었다.

대회 당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물을 챙겨 들고 가족과 함께 나섰다. 아들은 아빠가 그거 하는데 내가 왜 따라가야 하나며 뽀로통... 아빠가 나이 들어 이런 도전을 한다는 걸 몸소 직접 보여주기 위함도 목적이었기에 그냥 따라오라 했다.

처음엔 생활체육대회 실내경기인 각종 마스터즈 대회(전국적으로 정말 많다)를 목표로 준비를 했다. 연령별로 나뉘어 있기도 하고 참가하는데 의의만 두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가하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참가하려니 민망하기도 하고 수영장에서 50m를 자유형으로 38초의 기록으로는 망신(당연한 건데...)만 당할 것만 같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다.



대회 모습



아들 얼굴에 뽀로통한 표정이 다 드러난다

얼마 전 버스를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너며 “아빠가 곧 저기를 수영으로 왕복할 거다”라고 하니 놀라며 그걸 어떻게 하나며, 아빠 대단하다며 격려를 해주던 놈이 아침 일찍부터 잠을 깨우니 귀찮을 만도 하다.

잠실대교 아래 수중보 옆 현장에 도착해서 바라본 한강은 수질에 대한 염려와 거리에 대한 압박감으로 걱정이 앞섰다.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 초등학교생부터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많다. 이 상황이 조금 심적 부담을 덜어주긴 한다. 까짓꺼며 죽기야 하겠어?

조별 350명, 총 10개조, 총인원 3,500명. 조별 사전운동 집결 후 30분 간격으로 출발. 9시 30분 1조 출발. 옆에서 바라보니 할만할 듯하다. 난 2조 10시 출발. 아내와 아들의 촬영과 응원으로 한강도하 시작.

머칠 동안 전신 수트를 대여하여 실내에서 적응 훈련을 해 본 결과 할 만은 한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 결국 맨몸으로 하기로 결정. 근데 물이 생각보다 차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 하다 보면 적응되겠지 하며 나아가기 시작.

한 번에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 서로 부딪히기도 해서 조심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수영장처럼 바닥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헤드업으로 방향을 잡아가며 해야 한다. 한강 물은 탁하기는 한데 더럽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 물론 부유물이 좀 있긴 하다. 조금 마셔(?)본 느낌은 그냥 수돗물 맛이다.

이리저리 좀 부딪히기도 하고 방향을 잘못 잡아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를 여러 번. 그래도 조금 하다 보니 여유도 생겨서 뒤도 돌아보고 한강 주변도 보고 그렇게 가다 보니 어느새 반환점. 머 별거 아니네 갈 때는 속도 좀 올려 볼까? 하



출발 직전(흰 수모)



왕복 환영 도착 직전(흰 수모)



환영증과 환영 메달

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배영으로 한강 한가운데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니 이거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적극 추천한다. 한 번쯤 도전해보시라고.

왕복 1.8km. 오리발 쏙핀을 착용하고 33분 만에 한강 왕복도 하 도전 성공.

성공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바로 환영 메달을 걸어준다. 그 메달을 들고 가면 환영증도 준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성취감이다. 아들은 아빠 정말 대단하다며 존경(?)의 눈빛을 마구 날려준다. 평소에도 좀 그러지 이놈. 아내도 그런 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했지만 막상 성공하니 격한(?) 축하를 해준다.

SNS로 폭풍 자랑질. 근데 기대만큼 폭발(?)적이지 않다. 혼자만 뿌듯한가 싶어 조금 민망하기도 하다. 사실 하고 나면 별거 없다. 수영 조금만 하면 누구나 도전해 볼 만 하다.

참가 인원도 많다. 벌써 6회째라니 도전 인원이 몇 명인가? 겨우 그중의 한 명일뿐이지만 스스로 만족한다. 그리고 반환점까지 왕복으로 로프를 쳐서 물길도 보여주고 주변에 안전요원이 많아 안전사고 걱정 없이 충분히 해볼 만 하다.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제 또 뭐하지? 바다 3km? 철인 3종? 스카이다이빙? 암튼 또 화이팅하자. 🏊‍♂️